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족구문화가 확산 되기를”

익산시 족구협회, 익산시장배
전국동호인초청족구대회 성료

익산시 족구협회(회장 왕경배)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경 익산시 신재생지원센터 축구경기장에서 익산시장배 전국대회(회장 왕경배)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현을 익산시장(익산시 체육회 회장), 조배숙 국회의원, 한병도 전 국회의원, 김수홍 국회의원, 차장, 이관재 전라북도 체육회 회장, 박효성 익산시 체육회 부회장, 이종현 익산시 족구협회 고문, 조남석 시의원, 김용균 시의원, 김경진 시의원 김보선 익산시족구협회 사무국장 등 74팀 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경기가 이루어졌다.

이에 정현을 익산시장(익산시체육회 회장)은 “100세 시대를 사는 지금, 건강은 행복한 삶을 완성하는 필수조건입니다. 족구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기며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전국적으로 40만명의 동호인이 활동할 만큼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 했다. 시에서도 족구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종합운동장 내 축구 전용구장 6면을 조성하여 동호회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족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모쪼록 이번 대회를 통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후회없는 멋진 승부를 펼치고 회원들간 친목과 우정도 나누면서 유쾌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대회를 발표했다.

이어서 조배숙 익산을지역 국회의원은 “족구는 그 원년이 삼국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역사를 가진 민족 스포츠이자 건강과 협동을 지니는 훌륭한 공동체 스포츠이기도 했다. 생활체육으로서 전년이 넘는 세월을 이어온 족구는 시민들의 일상의 일부로, 가장 친근한 교류의 수단으로 자리



익산시 족구협회(회장 왕경배)는 지난 23일 익산시 신재생지원센터 축구경기장에서 익산시장배 전국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리 잡아 왔다. 이번 대회가 족구를 즐기는 동호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더욱 돈독히 함은 물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족구를 즐길 수 있도록 족구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백제, 마한의 위대한 역사문화도시,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이자 아시아 식품 수도로 거듭날 놀라운 도시 익산을 널리 알리며, 그 위상을 드높이길 기대한다”라고 축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왕경배 익산시 족구협회장은 “오즈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주5일근무제 도입 등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 차원에서의 생활체육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생활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계절이나 장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배우고 함께 즐기면서 건강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생활 스포츠 종목을 각광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족구이다.

우리 민족이 창안한 유일한 구기종목인 족구는 규칙이 간단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별다른 장비나 도구 없이 간편한 옷차림에 공 하나만 있으면 충

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관계로 시간을 제대로 내기 어려운 현대 직장인의 심신과 체력단련에 적합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대회 환영사를 가졌다. 이 족구경기운영방식은 ▲전 부서에선 리그전 후 조 1,2위 본선 진출/본선 토너먼트 경기운영 ▲참가규모에 따라 예선 및 본선 전 일부를 15점 3관 2선승제(상한 19점) 또는 21점 단관승제(상한 25점 또는 무제한제)로 운영 ▲경기운영은 대한민국 족구협회 경기규정 및 규칙에 준한다는 것이다.

이날 경기결과는 중부2부(우승 익산한국삼공, 준우승 대전보문, 공동3위 전주현대차, 세종퍼스트), 전북3부(우승 전주건지, 준우승 익산백마, 공동3위 익산청문 B, 익산금마), 전북 관내부(우승 부라보, 준우승 김제사자, 공동3위 군산조은생각, 정읍운동사마), 익산관내2부(우승 샘물B, 준우승 부송, 공동3위 익산부라보, 청문), 익산관내3부(우승 한강삼공, 준우승 호남B, 공동3위 금마,샘물A)등에게 상장, 트로피 및 상금(최고 50만원부터 10만원까지) 등을 거머쥘었다. /익산=정원필 기자

전북대 백기태 교수, 토양 정화 우수 연구 '장관표창'

전북대학교 백기태 교수(공대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환경공학전공)가 '제24회 환경의 날'을 맞아 중금속 오염 토양 정화 분야 우수 연구자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백 교수는 중금속 오염 부지를 정화하는 새로운 프로토타입의 원천기술 및 실용기술을 개발해 상용화까지 성공했다. 또 관련 분야에서 150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다. 특히 SCI급 학술지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에 따르면 백 교수는 2005년 이후 전기동력학적 정화 관련 SCI 논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표한(39편) 연구자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 18건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이 중 9건이 산업체에 기술이전돼 상용화 되는 등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 연구로도 정평이 나 있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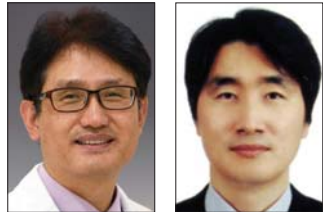
전북대병원 정연준·신현백 교수팀 논문 '최우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 소아외과 정연준·신현백 교수팀이 최근 열린 제35회 대한소아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연재상,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연준 신현백 교수팀은 학회에서 '앞가슴의 선천성 유파두(Congenital dermoid fistulas of the anterior chest region)'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최우수연재상'을 수상했으며, '재발성 선천성 유두 폐쇄증(Recurrent congenital milium of the nipple)'에 대한 증례보고로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연재상을 받은 '앞가슴의 선천성 유파두'에 대한 연구는 상기 질환에 대한 보고가 적고 잘 알려지지 않아 간과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해 질환의 정확한 특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연구팀은 선천성 유두 폐쇄증의 적절한 치료법으로 유두를 보존하면서 피낭을 벗겨내듯 병변을 절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치료 방안을 제시해 큰 관심을 모았다. /김영태 기자



덕치면, 국가유공자 명패 12명 달아드려

임실군 덕치면은 최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임실회 덕치면장은 6.25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 등 12명의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직접 부착하고 유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실=진충영 기자



군산간호대, 진안 노채마을서 2박3일 농촌 일손 돕기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 농촌사랑봉사단 군산 간호대 학생 30여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안군 안천면 노채마을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활동은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여 진행된다.

농촌사랑봉사단 군산간호대 학생들이 노채마을을 찾아 대표 농산물인 포도밭과 인삼밭에서 포도 수확기와 인삼밭 제조작업을 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일손을 도왔다. /김영태 기자

금구면 주민자치위,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

김제시 금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승일)는 24일 금구의 미래를 밝힐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금구 초중학교 교정에서 실시된 캠페인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공무원, 학교 교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를 위해 참여자들은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라고 적은 플래카드와 청소년의 고민을 환기시킬 문구가 쓰인 띠를 어깨에 걸었으며, 청소년 고민상담 전화 1388, 청소년 자원센터 콤포트를 소개하는 전단지 배부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대-전주내과영상의학과, 업무협약 체결

전주대학교는 24일 전주내과영상의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주대 재학생 및 교직원 1만2천여 명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무료 추가 검진, 선택 검진 및 진료비 감면 등의 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20~30대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 교직원이 받았던 혜택을 재학생에게까지 확대 적용했다. 특히 두 기관은 정부가 만 20세, 30세에겐만 지원하는 정신검사를 만 20세 이상 재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해 검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5일 (토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95)96992 전주신문기	222-488 (서노승훈)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288-6874	남원지사	622-3896	
010-9845-4113	인후지사	248-8855	김제지사	547-8855	
삼천지사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010-2333-4791	팔백지사	253-6944	남원지사	652-0995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208	순창지사	553-0444
요지지사	010-8845-9855	익산지사	659-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